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 이사장

유월은 호국·보훈의 달, 송고한 달이다. 의병의 날, 현충일, 민주항쟁 기념일, 6·25 전쟁일 등을 품고 있다. 호국과 보훈은 국가적으로 지대한 개념이다. 국어사전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호국이고, 그 공훈에 보답하는 게 보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체제와 국력, 그리고 국부(國富)뿐만 아니라 국민이 누리고 있는 개별적인 삶까지도 포함하는 가치다. 보훈은 이러한 호국에 바치신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 유월에, 나라 안 시국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코로나19는 일 년 반

이 유월에 갖는 단상

째 우리 곁에 머물며 아픔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맞서고 있으니, 언젠가는 다 같이 이겨내는 날이 올 것이다. 정작 큰 아픔은 따로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달에 대해서는 호국과 보훈 때문이다. 세태가 이 돌을 어지럽히고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똑같이 가져야 하는, 간단명료한 이 개념이 현실에서는 복잡다단하기 그지없다. 이 성스러운 가치가, 한 나라 안에서, 소위 정의로운 시대에, 정의와 이해(利害)와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휘둘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확고히 정립된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는 근면한 국민성도 있지만, 훌륭한 지도자와 선각자, 경제인, 그리고 나라 지키기에 고귀한 피를 흘린 분들의 덕택이다. 그런데 그 기준과 의견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다.

을 기리는 '보은의 달'이다. 오십여 년 전 유월, 현충일 무렵의 보리 수확을 추억한다. 뜨거운 별살 아래서 보리를 베고, 묶고, 나르고, 타작하고, 알곡과 까끄라기를 집으로 옮겼다. 이 일에는 어른과 아이가 따로 없었다. 보리 까끄라기가 맘에 쏠려 찢지 못한 밭에 달라붙었다. 까슬까슬 살갓을 찢러대도 참았다. 다른 식구들도 함께 겪는 일이었다. 새 보리쌀로 지은 밥을 한 번쯤 조금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그때 가장의 식솔들에 대한 독선적인 혹사와 대우는 지금의 시각에서 이해도 용인도 어렵다. 그래도 이제 피해의식이나 원망 따위가 전혀 없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 지난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을 견디는 힘을, 어르신들의 혹독한(?) 가르침과 희생, 그리고 근검과 지혜에서 얻었다.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않은 필자의 아이들도 이 보은의 가치는 기꺼이 지키고 있다.

잘못된 사고는 바로잡기 힘들다지만 보국을 위해선 이를 가다듬어야 한다. 옛 성현들은, 사람의 성격이 쉬이 바뀌지 않음을 '삼년구미불위황모'로 비유했다. 개포리 삼 년 묵어도 황모(붓의 재료가 되는 족제비 털) 못 된다는 뜻이다. 예곡되고 고착된 사고가 딱 그 개포리 짝이다. 호국과 보훈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고, 이 개포리처럼 완고함으로 굳어져 있으니 큰일이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진정한 국가관을 갖추고 나라 살리기를 우선시해야 한다. 국민의식의 분열은 국가의 불행이다. 하물며 호국과 보훈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으니 그 불행이 오죽하겠는가. 요즘 나라 안팎으로 겪는 어려움이 이것뿐일까만, 유월의 눈과 가슴으로 보고 느끼는 호국과 보훈은 참으로 초라하다. 그래서 이 유월에 더 아프다.

사설

코앞 장마, 재해예방 능력에 불안 크다

올해 장마가 예상보다 늦은 다음달을 앞두고 사전 대비해야 할 재해예방 공사들이 여전히 능력이어서 큰 우려다. 제주는 매년 찾아오는 장마기간 집중호우에 태풍 내습시기도 이어지면서 예상외의 엄청난 재해피해를 입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녀 더욱 그렇다. 당연하게 지역 곳곳의 재해예방사업들은 사전 철저한 준비로 장마와 태풍 내습 이전 마쳐야 하는 데도 제때 공사를 못 마친 위험지역들 때문에 시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

도와 행정시는 지난달부터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정비에 나서왔다. 그 결과 5월말까지 저류지 17개소 지장물 제거와 지방하천 18개소 정비, 배수로 6.7km 정비 등을 마쳤다. 하지만 상당수 저류지·배수로 정비사업 등의 경우 마무리 되지 않아 문제다. 제주시의 경우 구좌읍 송당·하도지구, 조천읍 와흘·선흥지구, 환경면 청수리 저류지 등 정비작업이 아직

진행중이다. 두번이나 엄청난 범람피해를 낸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예산확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 작년 태풍 내습 시 범람 위기로 긴급대피령까지 내렸던 월대천 정비사업은 8월말에야 완공 예정이다. 재해예방은 키녕 집중호우기간과 겹쳐 공사 정상추진마저 불투명해 질 상황이다.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제기능에 의문을 받아온 한천 병문천 산지천 흘천 등 4개 하천 저류지 대책, 침수피해를 반복하는 남수각 북계구조물 철거 여부 등도 큰 과제로 꼽힌다.

올해 장마가 7월로 늦춰졌다해서 자연재해 없이 지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상이변속에 예측을 넘는 강수량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상당수 저류지·배수로 정비사업 등의 경우 마무리 되지 않아 문제다. 제주시의 경우 구좌읍 송당·하도지구, 조천읍 와흘·선흥지구, 환경면 청수리 저류지 등 정비작업이 아직

열린마당

청소년의 상상이 현실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오지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난 9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해왔다. 대한민국 의무교육 기간이 9년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방재정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브라질 알레그리시에서 시작됐고,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서귀포시가 도내 최초로 시작했다. 아쉽게도 현재도 주민참여예산지구 내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서 나섰다.

우리는 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을 특별한 교육 없이도 성인이 되면 납세 의무를 지며며 자연스럽게 습득하지만 막상 그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미래의 납세자인 교복 입은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배우게 된다면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시작하게 됐다.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 신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서귀포시 청소년 수련시설 14개소에서 가능하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직접 만든 사업이 실현되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우리 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약 132억원에서 출발해 2020년 약 200억원 규모로 확대됐듯 청소년 참여예산제 또한 2000만원에서 시작해 앞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내년도 제주예산 확보 창구 공백 불가피

위성곤, 예결특위 임기 종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최근 종료되면서 내년도 제주 현안 예산 확보에 비상.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전체 국가예산 및 기금 등을 심의·의결하는 상설특위로 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예결위원을 역임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해 6월 예결위원에 선임.

예야는 조만간 예결위를 새로 구성할 예정이어서 제주 의원들이 선임될 수 있을 지 주목. 부미현기자

등교수업 인원 확대 촉각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교수업 인원 조정 여부 및 규모에 촉각. 현재 제주지역 학교는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추가 연장에 따라 이와 연동해 등교수업 인원

을 축소 조정할 학사운영 방안이 27일까지 유지되는 상황.

대교육청이 이번 주 중 의의를 통해 27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확정지를 예정인 가운데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준비기간을 겸한 과대학교의 등교수업 인원 확대 여부에 관심. 오은지기자

제주시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

○제주시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안동우 시장이 22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절충에 나서 성과를 거둬들기 관심.

제주시의 내년도 국비사업 신청은 총 451건·6212억원 규모로 당초 목표액인 6000억원을 상회하면서 주요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

안동우 시장은 "경기 활력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확보가 절실한 만큼 중앙 인적자원을 활용한 적극 절충에 나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인구 줄고 고령화, 희망이 사라진 농어촌

제주지역 농어촌의 풍경이 완전히 바뀐 날이 머잖아 보인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가와 고기잡이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어가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다. 농어가의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농어촌이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농어촌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20년 호남·제주 농림어업총조사 현황 및 분석' 보고서는 이같은 농어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 수는 3만519가구로 2010년(3만7893가구) 대비 19.4% 감소했다. 농가인구는 2010년 11만4539명(전체 인구의 21.7%)에서 지난해 8만141명(12.0%)으로 30.0% 줄었다. 농가 경영주 연령도 60대 이상 비중이 2010년 48.5%에서 지난해 58.0%로 높아졌다.

도내 어가인구 감소세는 피부

에 와닿을 정도다. 지난해 도내 어가 수는 3021가구로 2010년(5000가구) 대비 40.0% 감소했다. 어가인구는 2010년 1만5000명에서 지난해 6899명으로 10년 새 무려 54.0%나 줄었다. 65세 이상 어가인구 비율은 24.3%에서 43.5%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도내 어가인구의 고령화가 얼마나 빠른지 체감할 수 있다.

제주 농어촌에서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농민들은 농사가 잘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다. 농사가 잘 될 경우 수확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다.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 이른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기 일쑤다. 반대로 흉년이라고 관찮게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수입 농산물을 방출해 댄서리를 맞는다.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도 나오지 않으니 농어촌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부고

현종학 아버지 연주현공 덕삼(향년 88세, 前 경찰공무원, 국가유공자)께서 서기 2021년 6월 20일 20시 30분경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6월 23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24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조천읍 선흥리 가족묘지

- 아들 현종학 며느리 김정은
종훈 안성희
딸 현복희 사위 강선일
복례 강명돈
복자 정공철

※ 연락처: 현종학 010-7444-6945
현종훈 010-9458-330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어머니 남양희씨 기화(향년 93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6월 23일
아들 강영호 며느리 강혜선
박서진
강영돈 박서민
송미애
딸 강영희 사위 이광흠
조철규
강영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청구한씨 농옥(향년 9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6월 23일
아들 강창봉 며느리 박영심
딸 강영실 사위 오중홍
선희 문용배
동심 문용배
선녀 정병훈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구사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묘로 보아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Table with columns: 일련번호, 분묘소재지, 지목, 기수, 비고. Includes details for 1. 분묘소재지 기수, 2. 개장사유,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4. 개장방법, 5. 공고기간, 6. 신고 및 문의처, 7. 신고지, 8. 기타사항.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시면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품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Advertisement for Baekdoraji powder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product images. Text: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연락처: 064-783-898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Advertisement for Hanra Daily with a woman's photo. Text: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Large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프라자' (International Hearing Aid Plaza). Text: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Includes a map and contact info: 대표 임창완,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